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성산읍 고성리 장광자, 홍삼순 해녀 - 2

해녀: 장광자(1943년생,)

홍삼순(1942년생,)

인터뷰 일자 : 2019. 08.

인터뷰 : 좌해경(Q로 기록),

해녀 : 장광자(A로 기록), 홍삼순(B로 기록)

Q : 그 저기 물 속에 가면 깊은 물 속 들어가면 뭐 귀도 뭐하고, 그런 건 어떻 험니까? 신체 변화

A : 예. 그 신체 변화가 그게 바로 잇우게게

B : 그 해녀덜이라도 다 짚은 디 가지 못 해마씀. 귀 땡겨 못 가는 사람이 많아마씀

Q : 언니는 어떻 했우과?

B : 귀 땡기진 안 험니다.

Q : 아, 귀 땡기진 하나도 안허고이

B : 예.

Q : 민물 뗏 발 꺾장 가집디과?

B : 뗏 발 꺾장 가는 거 보다도 지금 우리 수족관에 땡기는 것이 십메다(10m), 십일메다(11m)?

A : 십이메다(12m)

B : 그 디, 그자 그 정도민 노민 그자 수심 깊은디 가민, 흐폴 영 박사 물건도 잡아 올 거 아니파? 그 정도우다.

Q : 거 언니는 상군이레메. 최고레메

B : 아이고, 상군이 따로 잇우다. 우리 젊을 땐 해주마는 이젠

A : 젊을 땐 상군인디 요샌 아니라도 경해도 요새도 아이덜은, 짚은 디 못 가는 아이덜은 우리더레 “아이고 상군 어른, 상군 어른” 험니다마는 그 때만인 아닌디 누게 강 정확허게 재어보진 안 험디 우리 친정 어머니가 물질을 흐폴 잘 해나신디 나도 어머니 닳앙 잘 험젠 허명 아이 때도 시켜나신디 우리 어머니네가 그 어른덜 얘기헌 게 하나 틀린말이 잇어마씀양. 그 어머니덜이 누게 수심 강 재어보지도 안 험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허는 말이. 이레 오라, 앞더레. 저 전봇대가 십오메다(15m)난에 우리 어머니네 속곳 입어근에 그거 숨비어지켄 허명 그추룩 말해 낫우다게. 이레오라.

B : 경헌디 물질이렌 험 것이

A : 그추룩 헤근에 그 걸 십오메타(15m)로 잡아나신디, 요즘은 누게 재어보지도 안 허곡 험디, 우리

Q : 한 십오미터(15m)는

A : 우리 그 한창인 때, 우리 그 고무옷을 입기 시작허난에게, 저 무신거니 닳을 낚십주게. 주머니 창 돌 담양, 이만이 험 돌 담아근에 딱 허게 닳 허민. 닳을 저 열다섯(15)발이나 열여섯(16)발씩 상군 험 땐 그추룩 행 느직허게 행 그걸 비속허게 누우민 우리가 그 안네 숨비영 험 건디, 요즘은양 흐폴 우리 세대가 나이들단 보난 우리 그 숨비어난 바당에 안 가도 아이덜 식구가 족으난 물건이 잇어부난산디 우리 해난 디 아직은 못 감수게. 안 감

수게덜.

B : 저예, 저 늑다보난양, 혼 칠십다섯(75) 뉘가난양, 호흡도 가뺑 욱심도 버려지고, 착착함이 있어마썸. 나가민 안 되겠다 생각에서 가질 못 험니께

A : 계난 그 저 우리 세댄, 우리 또래에 물질 험 땀 바다에 허면 해녀가 하근에 바다에도 뜨 곡, 곳에도 뜨곡, 전부 다 해넵주께. 경허민 바다에 뉘 곰췌기가 와도

Q : 무섭지 안 허고

A : 무섭지도 안 허고. 그 곰췌기도양, 우리 어머니덜이 물질을 허면서 그 배움을 “배알로, 배알로” 허민 그 곰췌기덜도양 탁 탁 튀멍 오당 해녀가 이디 과작허민 핵드랑게 팔라정 진 짜 배알로 썸 들어강 가불고양. 거 알아사 들엄신디 어평사 햄신디 그추룩 허곡양. 뉘 물 아래 숨비영 우리 바다에서사 곳인 건 아직 안 땡건, 지금은 테레비 보민 상어도 들어왔 저, 무신거 했저 허난 가슴이 있당 철렁 험니다마는 그런 생각 안 허민 있당 거복은 바다에서 봐져마썸. 거복은양, 우리도 동꼳이 들민

B : 맞아

A : 크지 안 허도 등 포리릉 현 거복은 나도 보민 놈도 보곡 허여근에. 그 말넉각에선 거복이 살암신고라 있당 말넉각 가민 쥬쥬 봐지곡 헤여근에 허곡, 있당 바다나 썸썸 허민 그 거복도양 원 새끼사 낱젠 들어완사신디, 죽젠사 들어완신디 있당 곳이도 들어오민 우리 해녀덜은 안직도 그걸 큰 거 요왕 무신 걸로 헤영 막 정성 다 행 보내곡 또 허곡, 또 스지 현 해녀덜은 저 우리 숨비당도 이제 난 그추룩 해본적은 엇우다마는 저 그 거복이 보아 근에 그 소라라도 허나 올양 주어근에 재수조민 막 소망일곡, 또 그추룩 안 허민 그날 원 손 털영 아무것도 못 잡양 오민 “아이고, 나 오늘 이 영영 한 거복 봐전에 영영 험게 오늘 재수 엇언 아무것도 못했저” 허는 소리도 허곡. 불턱에 가민 경 험니다께. 그런 그런 소리도 허곡.

Q : 거니까 그 바다 속에 가면 막 무서운 거는 아까처럼

A : 무서운 건, 예, 무서운 건 엇인디, 하루 수심 깊은디 숨 비어근에 있당 숨 꼴딱허게 넘어갈 땀, 하루 그 소라 잡는 날은 해녀 혼 사름이 두번썸은 햄실거다 생각해집니다께. 나가 욱심은 안 부려도 이거 영 두(2)개 심어근에 그냥 올라와도 될 건디, 눈 썰매 전복이나 무신 거 봐지민 그때 못 행 오민 못 좃으카부덴양, 또 빗창 빠근에 전복 영 트민 숨이 또 나와마썸. 경형 물 우의 다 올라오민 “허어” 허영 숨이 돌아올 때 잇입니다. 숨이 꼴딱 넘어갈 때가양 그런 때는 두(2)번 잇인디 그런 거 외에 무섭거나 현 건 안험니다. 무섭거나 현 건

Q : 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, 물 속에서

B : 기억에 남는 거 무시 거

Q : 호호호호, 엇우과?

B : 예. 경헌디양, 물 속은 이 바다가 깨끗허민양, 이런 그물 곱은 거라도, 옷 곱은 거라도 현 거 잇이민 허꼴 추물락 현 어평 현 그런 것은

Q : 느껴집니까?

B : 예. 허꼴

Q : 그 욱지 물질 갔다 읍디게예. 욱지?

B : 예

Q : 어평험디과, 여기허고 막 틀려, 어디 갔다 오십디과?

B : 우린 저 돌산도 가오고, 저 연해욕지도 가오고, 어디 으라근데 다녀수다마는 우리 그땀

다 뱃물질 해부난양 네개 성 기영 가오민 발동기 저 거시기 넘어가민 우리 배 거, 네¹⁾ 안 젓젠 “우리 배 끌어 가줍서. 우리 배 끌어 가줍서” 허민 첨 좀 물기 끌어다 쥐근에 닷 허민 네 안 젓엉 그자 통통 허곡, 경 한 허민 그자 가불민 우리 그자 그런 정도

Q : 그 육지서 네 젓으멍 험디과?

B : 예

Q : 거른 어디 섬허고 섬

B : 아니, 우린 저

Q : 살멍?

B : 예. 거 살멍게. 돌산이엔 헌디 간 디, 간 때는 풍선 한 네 젓언 가고, 전 연해녹지 간 헌 땀 기계베 잇인다. 기계베로 한 간디

Q : 거른 베 젓어근에 섬에 강 작업해영

B : 그 전주가양, 전주가양, 바당이 먼 디 사는디 있고, 가까운 디 사는디 잇이민, 그 전주가 바당 산 딜 우리가 가사 작업을 허. 놈이 바당에 강 작업을 못 햄수게

Q : 아, 전주가 산 바당이

B : 예

Q : 거기서 자멍?

B : 예. 게민 저 거시기 가민 봄 되영 가민 팔월 추석에 돌아오곡, 오래 사는 사름은 팔월 추석 넘어사 오곡, 경해나수게

Q : 아니, 저 말은 육지 강 살긴 사는데, 그 베 탕 나강 작업허믄

B : 아니, 그날 그날 그날치기

Q : 그날 그날?

B : 예

Q : 거기 그 베 위에서 살멍

B : 아니 아니

Q : 뭐 허는 경우도 있덴 허멍

A : 예. 우리 난 경헌디, 뒤에 그디

Q : 남바르

B : 우린 경 안 허고

A : 예. 우리 저 거시기 충남 간에 그 전복 그디, 봄에 사월에 가민 가명싸라 해섬허곡, 조각 생복이엔 해근에 막 휘어댕기멍 옛가락챙이에 요만씩헌 거 막 붙으민 튼디, 베에 살아. 일년 내낭 베에 살아. 일년 내낭. 바당이나 막 쎄민 궂디 들어오고. 베에 살아

Q : 베에 살멍 그거 잡앙허믄 거 누게가 거

B : 동급니께. 동과. 거 광주리에

A : 그 전주가양, 전주가 우리 허민 그날 그날 전복 행 뜨민 우린 떠 쥐불민 우린 광주리 얼 구리엔 행 광주리얼구린 광주리에도 담곡, 또 망아리, 옛날은 저 광주리라. 대충 광주리라. 망아린 잘 엇곡

B : 광주리

A : 대로 해연 영 해연 우인 또 노 꼬아근에 영 한 헤어근에 허민 그디 동갓다근에 전주가 풀민 지금식으로게 베에 찍 허나 놓곡, 전주 찍 허곡 헤영 이제 베민 알아질 건가. 이왈, 이제도 이왈일거라. 이왈 베찍은 베찍이왈, 아니 전주찍 거 이왈 해근에 주어근에 허민

1) 네 : 노

우리쪽은 죽으민 막 저 해난 둘에도 있고, 또 흐꼐 생각해주민 전주쪽은 이알허고, 베씩은 혼 흐나만 헨 또 우리 좀수 흐꼐 낫게 주민 저 뒷해 갈 때 “아이고 아무 전주넌 잘 헤줘부난 그디 걸라” 그추룩도 헨 혼 번

Q : 거문 어머니 전복만 잡아?

A : 전복. 거 충남은양 대충 우리가 스월들에 이디서 메역 조물아된 가당 보민 해섬 쪼끔 잡곡, 전복만 험디다게. 그디. 경흐고 저 열으덥에 쳇번으로 저 어디니, 비지니에 헨 딴 안 비지니에 간에 그디 갈 땐 메역 조물아수다. 메역 조물고 막끝엔 합저허렌 허난에 나 합저혈 줄 몰란 합전가, 굴인가이 그 호맹이로 탁 허영 어땡 자락 밀리렌 해도 나 거 밀릴 출 몰란. 아이고

Q : 합저가 흥합 말허는거 아니에

A : 예. 흥합

B : 이렇게 들민양, 하나 두개 잇인 건 영 허기가 좋는다, 이만씩 덩어리 잇이민양 힘듭니다.

Q : 그건 뭤로

B : 호맹이로

A : 호맹이, 까꾸리 닳은 거양, 막 쇠헌 거 줍디다. 그걸로 강 박 등기렌 해도 나 그추룩 등기지 못 헨에

Q : 문어는 어떤 데 삽니까. 가네, 구멍에?

B : 예

A : 구멍에. 대충은 구멍에

B : 대충은 구멍에 사는다, 가당 오당은 우에 기어댕기는 것도 있곡, 감태에 잇인 것도 잡아 오고 험니다. 보통은 구멍에 있주게

Q : 구멍을 어떻게 알아마썸

B : 영 영 허문게 무신거나 잇인가 허영 영 영 쳐다보민게

Q : 그 문어 구멍을 다

B : 아니 아니, 문어 구멍은 아무데나 잇영, 호맹이나 아니 앓아 간 때는 문어 봐지민 올라와 근에 그 구멍 잇인딜 좃앙 가곡, 호맹이나 직접 앓앙 간 사름은 그때 헤 오주마는 문어 숨 드는 건 다섯번 여섯번 밖에 떼 오지 못 험니다. 딱 붙언

Q : 물꾸력 잡으민 어땡 데싸마썸, 삼춘은?

B : 상투기 데쓰곡, 거 니빨 헿 빠곡 헤근에

Q : 경 헤근에 가정 나왕예

B : 가정 나오민

A : 아니, 가정 나와 논 다음 위 와근에 니빨도 좃아불곡, 이땅 호맹이 시민 군 호맹이 시민 걸로 꿩영도 흥아리에도 들이치곡. 경 안허민

Q2 : 까꾸리

A : 그 망사리 옆이 조락이엔 헤근에 찻당 조락에 낳 영 부리 뭉영예, 뭉어. 도망갑니께

Q2 : 먹물

A : 먹물, 잘못허민 엇주마는 경 안형은양, 예

Q : 그 소살 가정 들어감수게양

B : 소살, 해너마다 다 안험니다.

Q : 아

B : 고기 작살은 고싸 왔단 그 아주망은 소살질 잘 허민

A : 막 우리도 흔 때 헤나수다게.

B : 이 소살질 허민예, 그것에 취밀 붙이민양, 궤기 하나 못 쏘민 다른 물건은 못 잡아마썸. 계난 그자 허꼴 무신거 현 사름은 그자 소살 아니 허여근에 궤기나 허나 싸집직 현디 시 난 저곳디 사름이민 그 소살 허나 빌려시라 허여근에 영

Q : 궤기 발견허민양

B : 예 예. 이제는예 막 인심이 박해근에 옛날은 쏘아다 주곡 허는디, 이젠 소살 빌려주민 큰 거 쏘아지민 팔아지민 돈도 갈라주곡. 하하하하

Q : 그 고기들은 영 아래 잇인거라

B : 예

Q : 어떤 고기들 요즘 잇입니까

A : 전이는, 전이는양 고기 막 합디다게. 경허난에 거 아무도 소살을 다 행 덩겨십주. 경허민 큰 건 찢러지민 풀젠 허민 살 사름도 잘 엇곡 허민 먹곡, 집이 제숙이어, 무시거 제사 헐 때 제숙 헐 거여 무신거 헐 거여 허멍 이 팔월 나가민 우럭 헤다근에 곱닥허게 물리곡

Q : 것도 작살로

A : 예. 작살로 막 우럭도 허곡, 잇당, 옛날엔, 엉덕엔 다금바리도 찢르곡, 물툏도 찢르곡, 북 발이도 찢르곡 막 그추룩 헤나수게. 경현디 요즘은 다금바리도 간 곳 엇어불고, 북발이도 간 곳 엇어불고, 포시로 현건디, 어떻 허다근에 요즘 잡는 건 물툏이엔 허는 건디

B : 갯돔

A : 갯돔 갯돔 험니다. 그 저 잡는 사름덜은 행, 정 줄은 굿어진 거양. 그건 어떠다가 허주. 전이만이 고기 잘 엇입니께. 예. 뭐, 우이 잇이민 잇당 잘 쏘을 땐양, 듬북에 영 부뜨민 승어도 재수 좋으민 찢러지고, 또 돔이엔 헤근에양, 황돔도, 요즘도 그런 건 잇당 간혹 봐져. 황돔도 봐지곡, 또 거무룽 현 돔도 봐지곡 허민, 옛날엔 그것도 듬북 툏도 먹어근 에 허민 듬북도 많이 그 바다 해초가 물 아래 가민 잇이민 그 에염으로 곱양 강 탁 찢러 근에 첨 폼도 허곡, 먹음도 허곡 헛우게게 마는 요즘은양 그런 게 잘 엇어마썸

Q : 상군 해녀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상군 해녀라고 험수과?

B : 짚은디 가곡

Q : 짚은디 강 어떻

B : 짚은디 가근에. 궂단양, 궂디 허는 사름은양 올로 요레도 못 헤마썸. 궂군덜은, 경해도 동네서 잘 허는 사름은 오분작도 무신거 안 허곡, 그자 돈은 궂군 안 허는 사름은 많이 버스는 사름은 많이 버습니다.

Q : 돈도 많이 벌고, 그 다음 짚은 데 가서 물건도 하영

A : 예 예

Q : 그 다음 또 상군 해녀는

A : 첫차로 수십 깊은 디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, 아까 교수님 말따나 귀도 안 땡기고 뭐 노래 지도 안 허고, 천장만장 이녁 혼자고 돌이고 벗헤영 그자 멍 낱 숨비어 가는 사름덜, 상군은 대부분 경협니다게. 경허민 어떻든게 상군이 아멩해도 돈 하영 법주게. 총계적으로 허면,

Q : 돈도 하영 벌고

A : 예. 모양 꼭 궂찌 이 언니영 나영 숨비어도게 메역을 그추룩 헛무레 말고 메역을 조물아도 물 아래 재게 들어가고, 손 빠른 사름이 허꼴이라도 더 잡으민 돈도 더 벌곡 허민 “아이고 느 오늘 느가 하영 헛저” 그추룩 행 곤고게 경 아멩해도 칭하가 잇입니다게. 상

군, 중군, 하군 칭하가 잇입니다게.

Q : 그 물에서 나오면 불턱에 앉으잖아예

A : 예

Q :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거꽈?

B : 아니, 그 옛날에는 불턱이 잇어주마는 이제는 전부 다 개방되니까게 탈의장마다 다 해주
곡 허난에

Q : 어떤 순서는 엇우과?

B : 엇우다. 아유, 탈의장 아닌 때는데 우리도 별질을 다 해봐서마씀. 집이서 물 끌영 팽에²⁾
담양 가근에, 옷에 싸근에, 물에 들영 나민 그 물 혼팽으로 모욕행 오곡 해나신디, 그건
아이고, 요샌 첨 모욕탕

Q : 그 지금 해녀분들이 젊은 사람 오면 ‘이디 왕 이거 잡으라’ 교육 시키는 거

A : 예.

Q : 그런 게 잇우과?

A : 우리 어촌겐 엇인디 옛날, 옛날 그

Q : 교육을 어떤식으로 헛우과?

A : 우리 어머니덜은 야, 이디 와보라, 이디 저 메역이 흐꿀 잇이난 이디 왕 흐꿀 숨비영 가
렌도 허곡, 또 첨 나도 그 시집 오난에 동넛 어른이 경허난 아이고 아무 “야, 누게 각시
야, 요레 왕 숨비어 보라 메역 잇저” 영 해근에 허민 그 메역도 7찌 조물곡, 또 나도 그
땐 흐꿀 숨비어질 때민 그 어머니 또 혼숨 숨비어다똥 영 놔네곡, 그추룩 헤여 온 건디
요 근란 우리세대 들언에는 고동이 잇어근에양 “요레 오라”는 커썬 안 해봐수다게. 커썬
안 해봐신디 나가 느낀 점이 잇우다. 나가 느낀 점인데, 나도 그 땐 막 한창이란에 흐꿀
헌디, 그 아까 굴았주마는 개간초가 이 우리 마루보다 흐꿀 큰 여를 완 툯 허게 앓아로난
에, 아고 완 보난에 혼숨 숨비어 보난 개간초가 듬복도 엇고 미웃허게 나난 아이고 나만
숨비어서민 혼 망사리 헐 걸, 저만이 신양리 장수 어명이엔 현 어른이 숨비언에, 영 나신
더레 해뜩허게 봐리난에 “이레 왕 요디 혼번 숨비어 봅서” 허난, 오난 나보단 숨 질어부
난에³⁾양, 난 죽영 허고, 그 어른은 혼 망사리 헐 완, 요즘 것들아시민 그 어른신디 “아이
고 더 숨비영 가봅서” 라도 허곡, “그만 숨비영 가봅서” 이라도 굴아볼 걸, 지금은 그 어
른도 그추룩 후회 나근에 아니, 범이 어멍 불러준 거 나만 다 행 오지 말아근에 원 숨이
곱배기로, 이 어른도 숨집니다. 이 어른도 숨이 하도 질문 그추룩 헐 일 엇주마는 우리
그 좁쌀 놔근에 밥 빨리 된덴 허는 걸로 “아이고, 좁쌀 낱 밥 행 먹어사 야인 나와” 그
추룩 경허난 그 어른이 숨이 보통으로 진 어른이 완 허난 도곤 도곤 헤 와부난 난 가민
숨 쫄른 사름이난 허허허허, 이제내냥양 그 어른도 옛말 삼아 “아이고, 지금 닳아가시민
혼숨 숨비어 될거라도 널 걸 그런 세상, 그런 세상” 그땐 어리고양, 젊은 때난 욕심으로
경을

Q : 거난 숨비는 거는 오래헐 수 있는 것 타고난 거 닳우과?

A : 예. 타고난 거

Q : 배워서 안돼?

A : 배워서 아니우다. 배워서 아니, 배워서 아니. 이 어른은 어머니가 숨 질어났젠 헛게마는
이 어른이 경 숨질어

2) 팽에 : 병에

3) 질어부난에 : 길어서

B : 어느 것도 물린 엇인 것이 엇어마씀

Q : 물림예

B : 예

A : 아멩헤도양 어머니덜이 숨 질민 우리 어머니 죽은 눈 써 영 헤근에 손 빨랑 우리 어머니 손도 빨라났젠 헨디 난 어머니 님지 안 행 난 손도 빨르지 안 허곡, 아무 것도 안 험니다마는 그자 헤 덩겨. 하하하하

Q : 그 저기 삼순이 언니는 물질 해가지고 제일 지꺼진 때는 언제

B : 아이, 지꺼질 때는예 난 아방 첨 거시기 기관에 있단에 첨 일찍 돌아가셔수다게. 경헨디 난 촌에 살아도양 삼춘 말 곧당도 아무 것도 엇인디, 아방도 외아들인디 그런 덜 시집가 서마씀양. 경허멍 ‘아이고, 나가 어떻 행 살리’ 허멍 허단보난 첨 나대로 그자 헤영 애기 덜 둘(2)이 학교를 안 시켄 네(4)개우다게. 경헨디 그자 그럭저럭 허멍 그자 살아간 것이 나 보람이우다.

Q : 일찍 저기 아저씨가 돌아신 거?

B : 예. 선일곱(57)에 돌아가시난

Q : 선일곱(57)이난 경 많이 늦지, 일찍은 아니주마는예

B : 예. 경헨디 촌에는양, 요 티끌이 하나 요 발 혼판이 엇인디 시집을 가난양, 그것이 제일 무시거 허고, 그자 경헨디다.

Q : 바당에서만 일을 해 가지고예

B : 바당에서만도 허고, 바당에 안 갈 때는 그자 놈의 일도 허곡, 그자 저 무신거 허멍 다 건 강허난 ‘요 애기덜이 그자 키우리 못허리야’ 헨에 그자

Q : 애써수다게. 그 다음에 거즘 다 됴신디 으, 노래 부를 줄도 압니까?

A : 우린 노래 불를 줄

B : 이 어른은양 모든 거 다 으망져도 노래는 백(100)점이우다.

Q : 노래는 백(100)점?

A : 빵(0)점 빵(0)점

B : 거난 그거라도 못 헤사 허주. 그거??장 다헤불른

Q : 허허허허

A : 난 진짜 노래는 못 허고양, 게 아까도 굴았주마는 그 물질 헤여근에 제일로 보람을 느낀다는 건양, 놈 안보는 디 강 나 믿음대로 소라도 잡곡, 그런 것도 허주만 헤영 기쁘고, 또 요즘들어 아 요즘들영 오늘처럼 교수님네 이추룩 좇아와줘도 기쁘고, 나 마음으론양 관광객덜이 왕, 요즘도 우리 주위에 사름덜도양, 누게 왕 말 굴으면 “저레 가라” 경 곤는 사름덜 잇입니다게. 아지도양 개방이 안 뉘영 어머니덜이 해녀 어릅서 허는디, 난양 요즘들영은 잘도 보람을 느끼는 게 대학을 나온덜 우리 대우 받아점수과, 아이덜. 난양 진짜 우리 어머니가 참 나 해녀 잘 시켜. 노래는 첨 그추룩 불르진 못 헤도게 바당에 가근에 테왓 짚영 바당더레 휘영 가명도 ‘아이고, 우리 어머니 날 나근에 이 고생 시킴시니’ 그 추룩 허멍 우리가 물질 허곡, 물질 허곡 받디 가곡 혈 땀, ‘아이고, 아이고, 무사 날 나져 신고’ 헤정게. 요즘들영은양 어머니신디 진자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점수다게. 보람이 그 거라마씀

Q : 어머니신디도 그렇고 바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?

A : 바당도양 우리가 그 못 살곡, 아까 이 언니가 굴았주마는 애기덜 너(4) 오누이 바당에 가곡 행 살 때에 저 바당 엇이민 우리 제주 사름 다 죽영 엇일 거우다. 우리 제주 어머니

덜만이 바다에 열심이 댕기고 강해연에 자식덜 열심히 키워. 우리도 밭도 엇곡 아무것도 엇우다마는 우리 그 영감은 당신은 나도 어려도 무신 밭음사 먹어신디. 부산 동아고등학교 나왔젠 허난 아, 저사름신디 아덜 삼(3)형제에 세번차고 허난 식계 멩질도 안 허고 저 공무원은 하나 따 났다 생각헨에 시집은 완 보난, 시집 온 후제 시험은 보레 가켄 헨에 시험은 보레 가난, 당신도 그걸 몰르고, 저, 군인 간에 아마 높은 사름 밑에 비서 헨 생이라마씀. 거난 전할 받는다 아마 전할 잘못 받안에 상관에 대한 불경죄엔 헨에 아마 징역사 살안 와신디, 나도 몰르고, 진 알아도 아넨 온 건디 순경 시험은 보레 대여섯시 막 밥이영 잘 헨 맥영 보낸 놔두난 그것 때문에 시험은 못 받 오꼳 돌아온 거 아니짜. 그처럼 헨 이처럼 살단 보난양, 농스 지영 밭디 일도 베랑 헨 줄 몰라도 막 스스로 노력은 헤영 밭 가는 것도 허곡 헤도 술 조금 먹언에양 헤부난에 헨디. 또 남자덜이 그 땀양, 일 허젠 헤도 일 거리가 엇어나지 안 헤수과? 공무원 아니곡, 선생이나 무신거 허지 안 헨 사름은 밭 갈민 그 걸로 농사질 때 밭 헨 사름 갈민 그 걸로 끝냥 검질을 메어수과, 무신거 헤어수과. 경허난 우리가 돌아댕긴거라마씀. 일 엇이 그처럼 헨디 쥬로 지금에 왕은 보람이게. '아이고, 그 물질 안 헤시민 어떻 살아시리'. 바당은 나가 생각헤도 매일 그 곤란할 때마다 어머니가 좋덴 헨들 친정에 매일 가근에 '어머니 나 쓸 엇우다. 돈 엇우다' 굴아집니까? 경헤도 그 바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

Q : 어떻게보다 낫덴 헨 말인게

A : 예 친정보다 낮은게 바당이고양. 쥬 반가운 것이 또 바당. 바당 불민 나 마음도 좋양 그 날 강 돈 백원을 벌으나 오백원을 벌으나 헤도 밭음 낱 집이 왕 한걸히 일 허고, 바당이 썩어가민 가슴이 콩당콩당, 무사 바당 썩엄신고 헤근에. 경허고 그때 요 그때 당시에 우리 바다에 댕기는 걸 막 불려와근에 아이고, '요 아무 사름은 바다에 댕기난 보게뜨⁴⁾에 돈이라도 잇일 거여, 무시 거 헨 거여' 그런 소리도 들어수다게. 경 낱 살진 못 허여도. 게난 바당이 쥬로 친정집보단 좋은 디가 바당인 거 같아마씀

Q : 여자들이난에

A : 예. 여자, 여자

B : 아닌 사름은 아니데로 그런대로 살아도 우리 그자 바다에 댕겨부난

Q : 바다에서 돈도 벌고게

A : 예

Q : 먹을 것도 나오고. 지금도 다니시잖아예.

A, B : 예

Q : 가근에 무시 거 허믄, 뭐 잡아오믄 자식들도 주고

B : 아이고, 자식도양, 안댕기는 사름은양 바당에 가믄 막 돈만 하영 버슬어. 백원을 버스나, 천원을 버스나 허민양 안 댕기는 사름은 막 우릴 막 돈 하영 버스는 걸로 인정힙니다. 거믄 우린 안 버슬어도 우린 벌엄저. 허허허

Q : 그 거저 다 끝남신디예 그 바당에 청소허고 갯담이 허는 거, 건 어떻게 험수과? 요즘

A : 요즘 우리 어촌겐 저 관광지엔 헤근에 저 읍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놔근에 청소허민 무시 거 청소 헨 건 엇입니다마는 경헤도 우리 바당을 우리 지킴으로 일년에 두번쯤은 계장님이 우리 해녀덜 뭇 일날 아침이 일찍 내려 왕 청소험서 허민 우리 강 청소 허곡, 또 우리가 지켜켄 헨 일년에 두번씩 청소허는디 또 바다에 갯담이 사업은 예, 뭇 년도니, 그 때는 그 톨을 많이 아까도 얘기 해주마는 톨에 돈을 사난에양, 바당 좇안에 톨도 심고 헨

4) 보게뜨 : 호주머니

에 우리 저 정순원 계장님 헌 때는 국무총리상도 타고 헨에, 잘 댜젠 헨에 첨 헌 건디,
요즘 들언에 허난양

B : 벌써 파손 뒤서

A : 바다가 파괴뒤고 허난 또 완전 욱 들언에 지금 허멍 우리 바당이양 울퉁불퉁도 뒤고 자
연도 헤불고 원 허여도, 그 톨은 톨 값 안 가도 지층도 강 케고, 그추룩 일(1)년에 혼(1)
번씩 헤쩔. 올리도

B : 헌덴 말 혀

A : 헌덴 말은 잇어도 아직 날 정허진 한 헤서.

Q : 아직은 안 허고예

A : 예. 안허고 헤수다.

Q : 숨비 소리는 아까 뭐 이것 저것 잡당 보른 숨이 꼴깍 넘어가기 바로 전에 올라오른 숨비
소리가 나잖아예

A : 예. 거 숨비 소리가양 이 모른 디서

B : 여기서 허젠 해도 허지 못 헵니다

A : ‘호이’ 허민 잘 안나오느디 그 바당에서 잇당양 숨이 다 뒤나 강 올라오민 자연으로 그
소리가 쑥쑥 나와마쑥. 누구 시키지도 안 허고양 헌 건디도, 겐디 숨비 소리도 다 사람마
다 틀립니다. 바다에서

B : 저 거 굿디 든 아이덜은 가세 허는 사름은 숨비 소리 잘 안 헵니다.

A : 짚은 디만 허는 사름덜이 경허민 ‘아이고 저 숨비 소린 누게 숨비 소리 닥다’ 헤근에 우
리끼리. 아이고 그추룩 헨. 거 첨 숨비 소리가양 거 첨 희안하게 나오는 거우다게. 거 물
숨 다 먹어도 ‘허어’ 허민양 썩허게 숨이 돌아오고

Q : 그 지금 여기도 해녀분들이 나이도 드셔가지고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잇우과?

B : 나이 들어 오지, 나이 든 사름은 들어오는 사름 엇고, 아이덜 들어오젠 허는 사름 잇주마
는 베랑 엇입니다.

Q : 여기도 베랑 엇언예

B : 예 경허민

A : 요 저 신양리 해녀 어머님 며느리엔 헨에 혼번 헤보켄 완 헴젠 허관데, 신양리 그 첨 희
장고라 잘 그리쳐쥬근에 허렌 허렌헌디 뉼 일 헤보난 힘들엄신고라 안 헨에 식당 헤뉼에
안헴수다

B : 계난 올리도 교육 완에 첨 들어오거들랑 환영헨 받아주렌 교육을 시킵디다게. 경해도 들
어오젠 허는 사름이 엇어. 요새는 일자리 함으로

Q : 일자리 하난예. 경 헤가른 바당은 좋아지지 안 헨 건가

B : 좋아짐은 뭐 헨 거과게

A : 경허난 바당이 나 생각엔 바당이 좋아져. 아까도 좋은 말 헛주마는 나도양 영 교육도 받
아보곡 영 뎡기다 보민 진짜 후대 엇인 것이 속상허지 안허파? 우리 지금 교수님 알다시
피게 우리가 해녀가 제주도에 네(4)뵤디⁵⁾ 뒤수다. 나가 이름은 다 몰라도. 그냥 세계자연
유산에 등재 된 것만 알양 등재 등재 헴주마는 유산에도 들고, 그거허고 우리가 네(4) 뵤
디 해녀를 헌 건디 네(4) 뵤디 해녀 헌 대신에 해녀가 죽 허게 이어져근에 대를 이어지민
첨 좋겟다 헌디, 해녀는 엇곡, 앞으로 다이브덜이 헨 것이 아닌가 그추룩 생각이 들어쥬
수다. 해녀가 자꾸 웨국 사름덜 왕 뉼 해녀학교도 나도 가 봐수다마는 중문이 이제사 생

5) 네(4)뵤디 : 네 군데

겨도 무시거 텔레비에 그 때 흥꼴 나와뎅기고 저 어디봐, 한림 그디도 헨에 나 그 이한영 이 때문에 그디도 가와수다마는 그디도 영 왕 해녀 물질 베와보켄 헿 베운 사름덜이 거의 다 웨국 사름덜이랍디다. 우리 제주도 사름덜 배우는 게 아니라. 그 이한영이 일(1)기 헿 때도 육지서 침 완에 배완에 그 사름도 우리 그 해녀로 헨 출세 헿 사름 아니꽈마는. 이한영이도게 그 서울서 어느 대학사 나와신디 대학 나완 그 일(1)기 그 해녀학교 해낸 슴비 만들고 이 한화그룹 이거 생기멍 이거 헨에 그 석사학위 따고 지금

Q : 아 기꽈?

A : 우리 그 톨 헿걸로 헨에

Q : 아, 톨로

A : 예. 톨로 헨에 그 침 이 어머니덜 공을 갇으지 못헿 허켄 허멍 헿디 잘 헿 가고 또 우리 도 그에따라 이 악화에 시작 헿 헿수다마는

Q : 맞수다게

A : 예 서로 상조

Q : 서로, 아 그 걸로 저기 논문 썼구나

A : 논문 썬에 그 저 박사학원 못 따도 석사학위 땀에 그 책 헨에 보내오고양 헨에 그추룩

Q : 경허는 것만도 고맙운 사름이우다게

A : 아이고 고맙고 또 웨국도 하영 가와수게. 예, 여러나라 가와수다. 가완 그것에 대해 침 허고. 게 우리집이 옷 걸어 낱에게 지금 주소도 옮겨가지 안헿 우리집이 잇우게

Q : 아, 여기

A : 예. 이한영이엔 헨에 편지도 오민 이디 옉크 헿디, 요샌 잘 알암신고라 안암수다

Q : 저번에 한 번 교육허는 날 그 때 오셔나서

A : 예게. 게난 그걸로 헨에 또 그 완 강의허는 걸 교수님 허는 거 흥꼴 인칙 가시민 볼 걸, 난 교수니 오는 생각은 안허고 강 보난 교수님은 가불고, 그 이한영이 강의허는 거 들으 난

B : 아, 요자기 그 수협에 온 때?

A : 응 수협에 올 때. 해녀 주로게. 자기 해온 것에 우리 해녀덜 허는 거 그거, 잘 엮연 와십 디다게. 하하하하

Q : 엮으난예

A : 예.

Q : 해녀분들을 좋아하고?

A : 예. 막 좋아허고예, 또 그추룩 열심히 할 사름도 엮우다게

Q : 맞수다.

A : 나가봐도

Q : 열심히 하는 거.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지

A : 예. 그디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나도 출세 헿다고 보아도 지더마는

Q : 맞수다.

A : 나 덕이 하영도 헤고 나도 나 그추룩 허난양

Q : 아 서로 도와주고 헿잖아

A : 예. 그 도와줌으로 무슨 헿우과?. 공항에 저물앙 벳 나신디 고무옷 입언 그 웨국 공항에 간 그 세계 등, 저 자연유산에 허젠 그거 허여, 서귀포 그 또 저 웨국 사름덜 완에 그 어디꽈? 컨벤션 그디도 간

Q : 거난예, 것도 되젠 허니까

A : 예

Q : 잘도 어렵단도 그게 되젠 허니까

A : 그게 헤여, 창조 그거 허난 나 서울 고무옷 입언에 숨비, 영 헨 숨비허는 거 헤주고 그디 간에 저 무시거파 싸인 받아오는 거 나 엄청 하영 받은 사름이우다 나. 진짜

Q : 애써수다

A : 예. 나 진짜 바로 이만 두꺼운 책 이틀에 사흘에 진짜 나 중앙회장 아이고, 중앙회장 말 판씩 안 7른 사름신디 저곳디 가근에 말 시켜 그 말 근곡 행, 싸인 헨 받곡 행, 높은 사름 싸인을 나가 진짜 하영 받아수다. 그 서울 그

Q : 아무나 해집니까게. 아이고 진짜